

考古學에 있어서 精神生活의 復元

그라함 클라크
(Grahame Clark)

崔 夢 龍☆譯

차 례

譯者註

- | | |
|------------|------------|
| 1. 社會構造 | 6. 宗 教 |
| 2. 言語와 記錄 | 7. 戰 爭 |
| 3. 美 術 | 8. 法과 道德 |
| 4. 呪 術 | 9. 文化의 擔當者 |
| 5. 科學과 宇宙觀 | 10. 接觸과 變化 |

譯者註

이 글은 캠브릿지大學 考古學 教授인 그라함 클라크의 「Archaeology and Society」(Barnes & Noble Everyday Handbooks, 1969. 초판은 1939년에 나왔으며 이후 1947년 2차의 개정을 거쳐 1957년에 간행된 것을 재인쇄한 것임) 중 제 7장 “Reconstruction: Soc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Life” (pp. 219-250)의 번역인데, 考古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復元 중에 서 精神生活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復元에 關하여는 필자가 일찌기 “고고학에 있어서 복원문제——이론적 배경——”(「人類文化의 發生과 展開」所收 東星社, 1983 pp. 258-277)라는 제목하에 언급해둔 바 있다. 여기에 소개된 책이외에도 Clark는 Aspects of Pre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0), World Prehistory (3rd. ed. Cambridge Univ. Press, 1977)와 The Identity of Man (Methuen, 1983)라는 저서를 가지고 있다.

1. 社會構造

先史學이 입증해 주는 놀라운 발전에 대하여는 生活, 住居, 技術, 運送, 交易 등에 있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를 극복해 가는 면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업적은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생활을 통해 전달되어 온 것이며, 그들의 種을 영속시키고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는 사회조직 내에서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현존하는 원시 종족들의 사회구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류학자들의 능력을 선사학자가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정적 문제에 대해 하다 못해 몇 가지 정보 밖에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 서울大 人文大 考古美術史學科 助教授

住居址가 완전히 발굴되거나 적어도 그 규모가 측정된다면, 개별적인 집단의 규모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종족에 의해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의 최대 규모는, 대체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만, 실제 규모는 사회의 선택에 의존하며, 이것은 그 종족을 밝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를 결정짓기 위한 가장 정확한 증거는 각 가정에서 그 시대에 사용했던 爐의 숫자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住居民들이 一次生物學的家族(核家族)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자녀를 가진 몇 쌍의 부부로 구성된 擴大家族형태에 속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집단이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집과 무덤의 단면으로 본 규모와 성격을 비교해 보고 무덤의 부장품으로 지위를 평가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결론지을 수 있게 해 준다. 사회적 지위의 뚜렷한 차이는 주거지, 무덤, 의복, 장신구, 그리고 장비 특히 무기에서 아마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사시대 사회에서 몇몇 가정의 노예들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밝힐 수 있다거나, 兵舍는 단지 문명사회의 상층계급의 넓은 장원에 필요한 것이었거나 혹은 벨기에서대로부터 영국에 알려진 노예의 쇠사슬은 집안노예 뿐만 아니라 아마 죄수들, 노예,매매에도 관련이 있으며 로마세계로의 수출로 운명지워져 있었다는 것 등을 밝힐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사시대 말기에 사회적 등급을 알려 주는 가장 안전한 실마리는, 타키투스가 게르만족에 대해 서술한 바와 같은 고대 저술가들의 기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선사시대의 사회를 이해하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인 활동과 여타의 것들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정도이다.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한, 수렵어로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分化는 性에 의한 것임을 比較民族誌學에서 볼 수 있다. 즉 수렵은 원래 남자의 일이고 채집은 여자의 활동이므로, 어로도 여성이나 남성 특히 늙은이의 일로 분화되고 그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선사시대의 수렵어로민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가끔 두 가지 性과 다른 연령집단이 함께 묻혀져 있는 각 무덤의 부장품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발트海(Baltic Sea)의 고트란트섬(Gotland I.)에 있는 배스터베어즈(Västerbjers)의 석기시대 묘지의 경우, 물개잡이용 작살은 남자의 묘에서 일정하게 발견되고 낚시바늘은 노파와 함께 묻혀 있었다. 미술 중 그림은 프랑스의 후기 구석기시대 동굴미술과 동부 스페인의 암각화에 묘사되어 있는 사냥꾼에 독특한 남성적 특징(圖 1)과, 또 대조적으로 벌꿀을 모으는 여성의 그림(圖 2)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준다.

농경민들에 대해 입증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은, 지방에서 필요한 원료가 어떤 범위에서 採鑛되었으며, 혹은 交易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專門人에 의해 選鑛되었는가, 그들의 產物과 교환하여 일부 또는 모든 식량을 제공받는 기술자나 보통 가족의 성원에 의해 가내에서 행해졌던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는가 하는 것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자는 광산, 채석장, 제작지의 규모와 생산물이 유통되었던 범위를 밝혀 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와 재료로 만들어진 土器와 道具들이 전문적으로 생산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주거지에 대한 전체적 발굴의 결과로 또는 적어도 대규모의 발굴에 의해서 실제 제작지를 조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만, 대체로 토기제작에 있어 轆轤(陶車·물레)의 사용은 가내수공업에서 벗어났다는 명

백한 증거이며, 잘 개발된 대장간의 존재는 대장장이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여기에 다시 생산물이 유통되었던 범위는 생산이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충해 주는 증거인 것처럼, 여러 가지 단서에 입각함으로써 찾아진다.

노동의 분업, 적어도 기능분화의 원리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훨씬 능가하며, 보다 발달된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 매우 우월한 지위를 수반하는 직업이 포함된다. 실로 계급사회의 출현은, 땅을 파고 타계석기를 만들던 현생인류의 조상이나 돌도뉴(Dordogne)의 동굴 미술을 만들어냈던 발달된 단계의 수렵민에 이르기까지 원시종족들의 원시공산주의로부터의 귀결이었으며, 크게는 인간의 출현이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선사시대 사회가 문명을 향해 발전하면서, 기본적으로 한정적인 식량획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직업 가운데, 화가, 방랑시인——후대의 작가——마술사, 점성가, 과학자, 성직자, 戰士, 통치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 중에 인간사회와 보이지 않는 힘 사이의 중개자로 모든 시간을 활동하는 성직자와 지상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통치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전차나 기병에 의해 부여된 막강한 기동력과 무장을 가진 戰士와 통치자들은 선사시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이었으며,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를 향유하였음이 명백하다.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이유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그리고 戰士나 族長의 경우 세습할 수 있었다——전문가들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활동에 반영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결과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연구함으로써 판단해낼 수 있다.

2. 言語와 記錄

사회적 전통의 전달과 축적,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전승과 사상의 형성을 촉진시켰던 말은 문화의 진보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어 침팬지의 경우 신체적인 핸디캡에서 벗어난다 해도 단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발전과정으로 접어들지 못하며, 반대로 말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원시적인 우리의 조상들은 궁극적으로 文字·文명에 이르는 먼 길을 걸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학자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언어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 종족의 문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여러 속성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구조와 저변을 이루는 관념 및 신앙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문헌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위험스러운 방법에 의하지 않는다면 초기의 탐험가, 선교사, 관리들의 기록에 의한 것 이외에 선사시대 종족들의 언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다. 19세기 문헌학자들은 현존하는 아리안語族의 말을 비교연구하여 아리안어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구성과 같은 방법 그리고 아리안어를 쓰는 민족들의 원래 거주지를 설정하고 그들의 물질문화, 관습, 주민의 출현을 찾아내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원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충만되어 있었다. 이것은 동일한 거주지를 가진 고고학적 문화나 이 문화와 같은 기간동안에 특유한 물질문화가 초기 아리안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선사시대 집단들

의 말을 효과적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더한 가능성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고대에 실제 그 언어를 사용했던 집단을 찾기 위해, 그리이스어나 켈트어와 같은 개별적인 아리아어들과의 관계하에서 이와 비슷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다소 먼 과거의 문화와, 언어적인 집단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위험은 특히 이 양자 혹은 한가지가 인종적 특성과 연결될 때는 강조될 필요가 거의 없으나, 현대 고고학적인 발견과 연관되고 보다 비관적으로 연구될 때에는 문헌학적인 연구의 가능성이 최근 미케네문자의 해독을 통해 일깨워진 것처럼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비교적 단순한 물질문화와 사회구조를 가진 원시사회에서 말에 의한 의사소통은 사회적 필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사회적 전통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법을 성문화하고 왕조실록이나 기도문을 써놓기 위해, 그리고 더욱 복잡하고 일반적 형태의 경제생활의 의무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記錄이 필요하게 된 것은, 반드시 보다 진보된 발달단계의 사회가 출현함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문자를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선사시대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이었으며, 실제로 선사시대인들이 점토판에 그들의 문자를 표현하고 토기에 그리거나 돌에 새겨 놓은 경우, 고고학적 자료는 연구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빛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후기 구석기와 '중석기시대의 미술에 나타난 몇몇 象形文字에까지 적절하게 확장될 수 있는 繪畫文記錄에 대한 연구는 文字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아직 선사 시대, 무엇보다도 원사시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사시와 신앙상의 기록에 나타나는 세계 최초의 문학에 보이는 여러가지 발생양식이 원래 문자가 아직 없었던 시대에 서부터 口傳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선사시대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러한 초기 문학은—지적해 말하자면 호머의 서사시와 같은—어떤 다른 出典으로부터 거의 얻어질 수 없는 선사시대인들의 관습과 정신을 파악하는 데 빛을 던져 줄 수 있다.

3. 美 術

미술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결코 자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술의 본질은 樣式(style)이며 어떤 특정한 미술에 그의 特有한 성격을 부여하는 양식은 미술가가 특정한 집단에 속함으로써 공유되는 것이다. 단지 사회적으로 혼란한 기간에만 상실되는 미술의 사회적 성격은, 대개 표현의 무한한 범위와 함께, 그 작품들의 문화와 역사적인 면을 정의하는 데 매우 특이하고 가치있게 만든다. 그러나 미술은 선사시대인들의 미적 가치에 통하는 안목과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까지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꼭 같이 중요하며, 심지어 그 당시의 자연환경까지도 일깨워준다.

모든 분야의 미술이 가진 제한된 양상은, 선사시대로부터 그 본질에 대한 어떤 진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전해져 오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언급된 일반적 성격과 한계를 지닌 어떤 생각은, 가끔 그림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악기의 흔적(圖 3)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지만, 音樂, 劇, 詩는 문명화된 민족들의 문학에 처음으로 간직되어진 형태로만 존속한다. 동굴미술의 足跡이나 묘사는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미 행해졌음을 충분히 보여 주

지만, 여기서는 단지 몇 개의 암시 만을 다루어야 한다. 한편 건축은 대개 문명화된 사회의 고고학적 기록에 나타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선사시대 집단의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즉 누군가가 건물의 흔적을 많이 찾아낸다 해도, 이것들은 미술의 한 분야인 건축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原型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단지 繪畫와 造形美術은 선사시대부터 적은 수내가 적절하게 표현되었다. 線刻畫, 彩色畫, 彫刻이 고고학적 자료로 후기 빙하시대까지 나타나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시대에 미술이 없었던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두드러진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미술이 출현하였을 때 그것은 각각 주요한 구실을 하였고, 그 이후에 얻어진 것들에 필적할 만큼 질적으로 우수한 면을 보여 주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 계승되는 양식과 같은 진보가 없다는 것이 미술사의 특징처럼 보인다. 선사시대 미술가들이 만들었던 재료는 부분적으로는 자연환경에 의해, 그러나 대다수는 기술적 환경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특히 후자는 사용된 기술에 있어 주요한 결정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코-칸타브리안(Franco-Cantabrian) 동굴미술은 석기시대의 수렵인들이 어떠한 동물을 잡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지만, 청동주조와 보석가공은 비교적 발달된 기술과 노동의 분화에 의존하였다. 자연환경은 특히 사냥에 대한 주술적 통제가 작품에 있어 주요한 동기가 될 때 造形美術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냥감은 그 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따라 크게 다른데, 수렵어로민들이 그들이 의존하는 사냥감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한 양식은 집단마다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점은 프랑코 칸타브리, 동부스페인(圖 2), 그리고 석기 시대의 미술집단에 의한 그림(圖 4)들을 비교해보면 곧바로 증명될 것이다. 또 모든 수렵어로민들이 자연주의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는데, 이는 중부와 동부 유럽의 후기 구석기시대 미술의 유형이 그 증거가 되며, 또 신석기시대 농경민들에 의한 작품은 추상적이었다. 주지하시다시피 구상적인 미술이 사냥과 경작방법에 대한 지식의 주요한 원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선사시대 미술에 생존의 여건이 영향을 준 충분한 증거이다. 특히 금속세공에 이용되었던 장식미술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실마리로서 더욱 중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流派가 통치계급으로 나타나는 소수인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술은 呪術과 信仰의 매개물이며, 실로 이러한 두 분야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주는 주원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문화 사이의 접촉과 새로운 문화발생의 결과에 대한 가장 자세한 약간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은 미술을 통해서이다.

4. 呪 術

인간이 그들의 자연환경과 또 인간끼리 서로 접촉함에 있어서 작용되는 因果過程을 뚜렷이 구별해내기 이전, 인간은 呪術的 手段에 의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가끔 주술은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呪文과 魔法를 통해서 말로 靈을 불러내었음이 틀림없다. 또 다른 방법은 획득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춤과 몸짓으로 實演하는 것이며, 보존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술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해 줄 고고학적 증거는 매우 다양한데, 벽화, 선각화, 조각, 偶像에 나타난 願望에 대한 묘사가 그것이다. 선사미술에 있어서 주술분야를 해석하는 예는 모든 환

경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선사시대 수렵민들이 살던 岩陰住居址, 동굴의 벽과 천정에 사냥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음은 모든 경우에 단순히 장식적인 것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있던 그림에 대개 겹쳐서 덧그림을 그리게 되며, 아마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좁은 회랑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는 화살이나 상처의 형태로 주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표시를 남기기도 하는데(圖 4), 이것은 미술가가 식량공급원으로서 동물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방적인 혹은 부적으로서의 효용이 있는데, 惡의 눈을 피하고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부착한 사람에게 활기를 주는 특유한 속성을 가진 장식구나 부적을 부착하는 것, 번개에 대한 보호령으로 집바닥에 도끼를 묻어 놓거나 도끼 모양의 부적을 착용하는 것과 같이, 물질적 대상이나 기타 볼 수 있는 표적으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주술의 목적은 인간의 조건에 기초하고 있으며, 질병, 不妊, 번개, 기근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근본적인 감정에 관련된다. 그 민족에 관계되는 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고유어이다. 그러므로 수렵·어로민들은 사냥과 어로에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주술에 관련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농경민은 무엇보다도 곡물과 가축의 풍요에 관심을 가진다. 원시시대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呪術과 宗教 혹은 呪術과 科學 사이의 차이점을 엄격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 풍요의 儀式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 주술, 종교, 과학에 관한 다소 중요한 문제는 그 업무가 얼마나 전문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주술의 경우,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미 이에 관하여 몇몇 사람에게 특별히 부여되었던 트로와 프레르의 마법사(the Sorcerer of Trois Frères)(圖 5)와 같이 그림에 암시되어 있으며 현대의 ‘미개인’ 사이에도 이런 예는 보편적인 것이다.

5. 科學과 宇宙觀

자연현상의 활동이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있었다 해서 일정한 자연법칙의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선사시대인들이 과학이나 우주관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생활방식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연환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이스인이나 다른 문명화된 민족들이 궁극적으로 일반법칙을 공식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선사시대로부터 축적된 경험적인 지식의 바탕에 의한 것이다. 인간에게 힘을 주었던 현상 사이에 있어 인과관계를 식별하고, 다른 동물들과 함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영원히 그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지식축적의 능력 때문이었다. 즉 인간은 지식에 의해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얻었으며, 이러한 지식은 수천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관찰의 온축과 분류에 의거한 것이었다. 지식을 축적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였던 덕분에 이러한 지식은 개개의 사회성원에게 공유되었고, 또 거꾸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발견이나 관찰은 그들이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전통에 의해 통합되고 흡수되었다.

生存, 技術 및 社會生活의 모든 上部構造가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지식은, 언어에 의해 전달

되어졌다. 선사학자들은 이러한 접근을 부정하고 있으나, 문자를 가지지 못한 고대민족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재구성해 보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은 초기 유적에서 발굴해낸 자료들이다. 맨 먼저 많은 유적으로부터 찾아낸 것들을 결합함으로써 그는 어떤 특정집단에 의해 사용되었던 가치가 있는 자료 중 어떠한 것을 확실히 발견해 낼 수 있다. 사육된 동물이나 경작된 식물의 흔적을 조사함으로써 선사시대인들이 사육과 경작에 대해 이해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러볼 수 있다. 유물로부터는 화학, 물리학, 야금술과 같은 자연과학에 대한 경험론적 지식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지식은 가끔 건조물에 있어서의 기하학 뿐만 아니라 무게와 수치로부터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농경에 종사하게 된 이후 시간과 계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경작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초기 인간들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은 天體의 運行에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태양승배에 대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입증된다. 그리고 최초로 문명화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천문학적 지식에는 선사 시대부터의 기초가 뒷받침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더우기 스톤헨지와 같은 유적의 방향이 하지날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는 것 같다.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천문학적 지식에 반하여 古墳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 같은 둥근 돌, 바위 위에 새겨진 性穴 또 그와 유사한 것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또 다른 천문학적인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인들이 밤중에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로서 항상별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이며 참으로 명심할 필요가 있지만, 博物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주위환경에서 부딪치게 되는 많은 원료의 성질을 파악하고 있는 산 지식, 工學과 기본수학에 있어 초보적인 기술을 알고 잘 발휘했다고 해서 선사시대인들이 자연의 물질세계를 과학적으로 법칙체제화시켰다고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선사인들에게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6. 宗 教

宗教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은 선사학자가 영원히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고학이 물질적인 흔적에 의존한다 하여 선사시대 생활의 물질적 면의 복원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앞서 보았듯이 잘못된 것이다. 행위에 의해 유형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 그 동기가 무엇이든 이것은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종교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儀式과 祭式行爲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범위까지는 고고학이 종교에 대해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종교는 조형미술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록 神靈感應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다른 면보다 더욱 더 잘 밝혀질 수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증거들을 해석함으로써 선사학자는 고대와 근대의 문자를 알고 있는 사회로부터만이 아니라, 현재의 '원시종족'들로부터 얻어진 比較宗敎學과의 관련하에서 막대한 양의 지식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종교적 감정의 발생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운명으로서 죽음을 깊이 의식하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최초의 그리고 선사시대 전 기간동안 생에 대한 종교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가장 풍부한 증거는 적어도 매장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圖 7). 대서양 주변의 거대한 石室墓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거나 하는 분묘축조나, 다소 정교한 부장품을 넣는 것에 기인되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장례의식은 인간의 정신적 본체와 死後의 생이 가능한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장례에 관한 고고학적인 흔적으로부터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土葬으로 변화하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였든 간에 장례식을 치루는 데 있어 가장 심한 변화를 보일지라도,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때로는 수반되기도 하겠지만)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장례의식——무덤, 祭式, 시체의 위치, 부장품 등등——은 그 자체로도 가치있는 연구대상이 되며, 그것들은 건물축조방법, 미술, 직업과 사회적 지위의 분화, 의류와 기술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수 있다. 단지 신체에서 분리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뚜렷이 보여주는 장례의식 이외의 다른 의식으로는 두개골사냥과 食人, 영혼을 불러넣기 위한 어떤 사물 등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흔히 뒤에 명백한 형식으로 취급되어진 인간의 유골이란 형태로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圖 8).

종교의 본질은 인간생활을 초월하는 힘에 대한 숭배이므로 선사시대의 종교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숭배로 인하여 취해지는 형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사시대인들에게는 자연의 힘, 하늘과 땅의 힘, 초목, 샘, 해, 달, 천둥, 경우에 따라 위안을 주거나 격려해주는 힘들이 초월적인 것들이며, 이것은 당연히 人格化된 神과 母神, 천둥 神과 같은 식으로 입증된다. 그러한 힘과 神性은 彫像, 그림이나 나무에 새겨진 상, 母神, 황소나 황소뿔, 남자의 像, 性器崇拜, 도끼 등과 같은 사물에 의해 상징화되며, 이러한 상징물들은 선사시대의 신앙체계에 대해 고고학적 증거를 많이 제공해준다. 다른 증거로는 늪이나 샘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성격과 위치로 보아 봉납물의 성격을 면 것으로 보이며, 동물 심지어는 인간의 희생까지도 시사해준다. 또한 실행장소 심지어 예배의식을 행하고 신을 숭배하던 寺院과 墓地까지도 있게 된다. 가족묘와 구별되는 일정한 사원이 신석기 시대 말기와 청동기시대 초기 영국에 조잡한 양식으로 세워졌다면(예, 스톤헨지), 어떤 의미로 성직자가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이것과 종교에 관계된 직접적인 증거는 선사시대 말기에 가서야 비로소 신빙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대에 처해 있던 문명세계의 기록으로부터도 알 수 있으며——타키투스의 드루이드僧(Druids)에 대한 설명과 같은 예——, 또 성직자들의 寶器의 모양이나 성직자였음을 나타내는 그림 혹은 무덤에서도 가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 戰 爭

文化의 근본적인 기능이 사회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다면,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과 조직은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몇 가지 면에서 전쟁은 실로 중요한 것인데, 존속하고 있는 문화는 군사적으로 보다 약한 다른 문화를 희생시

켜 그 세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더우기 사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 때로는 도덕적 종교적 자원까지도 가능한 최대 한도로 전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서이다. 전쟁은 실로 선사시대에 있어서 모든 문화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을 지닌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 같다. 전쟁과 같은 활동의 흔적은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있는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의 다른 많은 면도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 같은 활동의 증거는 특히 고고학적인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무기는 가장 보존되기 쉬운 광물질로써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보호용으로 흙 속에 매우 흔히 감추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이며, 또 봉납물로써 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부장품으로 死者와 함께 묻혀지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인 石造物보다도 잘 지탱되는 土壘로 이루어진다. 또한 선사학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증거로 잘 나타나는 인간의 유골 역시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전쟁의 사회적 중요성과,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대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과 일치된다는 사실이 조형미술에서도 특색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야만인들이 적으로엿던 용병으로엿던 동시대의 문명화된 민족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교역으로부터 결과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보다 늦게까지 선사시대에 속하였던 지역민들의 전쟁방법과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요한 원천이 고대의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인간사회의 문화정도를 재는 가장 좋은 척도의 하나이다. 첫번째로 이것은 생존의 기반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전쟁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잉여식량과 인력의 수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렵어모던 집단은 오랜 기간동안 수렵영역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릴 수 있었지만, 단순한 충돌의 규모를 넘어선 전쟁은 거의 수행할 수 없었다. 심지어 보다 규칙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농경민도 시초에는 그보다 더 나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장기간의 野戰과 같은 것은 인간사회가 문명의 여명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기의 효능은 기술과 교역을 증진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동, 철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값이 싸짐에 따라 방어의 수단으로서 보다 성능좋은 무기의 제작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급은 기술적인 발전을 향하여 상당한 힘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말이나 전차를 이용하는 발달된 교통수단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맨먼저 채택되었다.

선사시대인들이 갖추었던 무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한다면, 전쟁에 사용된 전법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실마리를 얻게 됨과 아울러 금속가공기술에 있어서 뜻밖의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분명히 가장 발달된 기술로서 무기와 방어용 갑옷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것은 사회가 계급화될 단계도 반영하는데, 야만집단에서 무기는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한 상징의 하나였고 때로 장식미술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거의 강조할 필요도 없이 강력한 적의 공격용 무기와의 관련 하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방어시설은, 군사적인 일과 인간노동의 산물로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축조에 소요된 인력을 추정하면, 관련된 사회의 경제력과 인구 그리고 단일

로 구축된 방어시설은 지도자의 지휘권에 대한 기념물로서 있게 되는 것이다.

8. 法과 道德

기록으로 쓰여지기 전의 법이 근대적 의미로 성문화되었다고 할 수 없을 지라도 선사시대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자가 사용되자마자 첫번째로 기록으로 나타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을 성문화한 것이라는 사실은 기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상적 내용을 가진 口傳된 法과, 이것이 근본적으로 선사시대에 근원을 두었음에 틀림이 없는 법의 실체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재산소유권과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가 규정된 것은 그러한 관습법에 의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선사시대의 사회에 있어 법이 실행된 어떤 정보가 얻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남는다. 경제적 면이나 어떤 비물질적인 생활양상에 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관계자료는 매우 적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알 수도 있으나 아직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최초의 인간사회에서 생존수단, 채집과 사냥활동을 수행했던 영역이 그들이 속하고 있던 사회집단에 의해 소유되었다는 것은 인정될 것이다. 인간이 아직 회귀한 동물이었을 때 영역의 정확한 경계가 다른 집단의 영역 사이에 뚜렷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설정에는 비교적 후기 단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농경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발달이 뒤진 수렵어로민에게로 점차 퍼져 나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의 개념은, 의류, 복장, 도구, 무기와 같은 원시적인 수렵어로민 사이에 존재하는 家財라는 매우 한정된 의미로 제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뼈, 뿔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로 남아 있는 유물에서 소유의 표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참으로 주장되어 온 바다.

인간사회의 경제적 진보는 원시 공산주의로부터 출현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하찮은 석기를 사용하는 미개인에게는 적당하겠지만 문명화된 사람들 심지어 문명이 시작된 야만사회에서도 전적으로 부적당하다. 계급사회와 문자의 출현을 발생시켰던 직업의 분화에서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다 한정적이고 보다 정확한 소유권의 한계와 관련된 부와 생산력도 역시 이에서 성장되었던 것이다.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결정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누가 소유하였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농경민의 경우 주거지의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유한 땅의 경계선으로부터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선사시대 유럽의 신석기시대 농경민들은 최소 한도 공공기업적인 요소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기초 위에서 땅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업을 수행하였음은, 그들 자신이 거주하는 집도 있었지만, 새로운 경제 개척자들의 거대한 규모의 주거지 군(정착지)에서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초기철기시대는, 소위 “켈트족의 경작지”라 불리우는 경지구획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어떤 명백한 형태나, 혹은 개개인의 경작지가 분할되는 방식으로부터 판단해보면, 그것은 토지가 개인의 상속재산으로 되었던 것 같다.

앵글로 색슨족의 농경체제는, 마을 공동체에 속하는 개개인이 마을의 경작지 사이에 흩어져 있는 좁고 길게 뻗은 땅을 소유하며 소를 공동경작에 사용하는 보다 집중적인 기반 위에 구성되어 있었음을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경작체제는 정착이 이루어진 후 여덟마리나 그 이상의 소가 끄는 쟁기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딱딱한 점토질의 토양을 공동으로 개간하고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기록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면 개개인 사이의 관계나 개인의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견물은 가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제재가 얼마나 가혹하였는가를 제시하고 입증 해준다. 철기시대에 속하는 시체의 예 중 북부독일과 덴마크의 늪지대에 그대로 보존되어 출토된 것이 있다(圖 9). 이러한 많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모두 남자이고 밧줄이나 버들가지로 목이 매어져 있으며 수렁으로 던져졌고, 그들의 영혼이 역병으로 되어 세상에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나뭇가지로 꼭꼭 묶여 있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타키투스는 간음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술하였으며, 고고학에 유용한 이러한 기록은 철기시대의 튀우튼족 사이에서 부부 간의 도덕을 어긴 범법자에게 가해진 혹독한 처벌에 기인한 것임을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9. 文化의 擔當者

선사학자들이 연구하는 집단의 성원 즉 문화의 담당자들은 그들 자신이 생물학적 유기체였음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한다. 즉 그들 문화 담당자는 자신을 밝히고 그들의 과거 선사시대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말해야 하므로 연구를 면밀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초기에 있어 그들은 활동으로 남겨진 고고학적인 흔적 이상으로 선사학을 이해하는데 기여해 왔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유골에 의하여 形質的인 특성의 진화, 즉 도구제작과 문화의 모든 기구를 기능하게 했던 입체적인 시각, 직립자세, 발달된 두뇌, 손으로 특수하게 발달된 앞발 등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다시말해 전기와 중기 홍적세에 사용된 여러가지 박편석기나 석기제작의 전통에 수반하는 인간의 形質的인 연구는, 초기 인간이 분산되어 나온 중심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投槍같은 무기가 최초로 출현하는 것이나, 돌, 뼈, 뼈로 만든 도구, 조형미술에 표현된 것과 같은 미적 감각에 의해 특징지워 지는 문화에 있어서의 뚜렷한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현대인의 형태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과 적어도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지, 또 말하는 능력에 있어서 기교나 세련도와 같은 증명이 안되는 요인들과는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홍적세 후기와 빙하기 이후에 특징있는 인간의 주거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현저하게 변화하는 기후와 함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데 관계되며,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 종이 분화된 여러 인종의 형성에 크게 관계된다. 인종은 특유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본질적으로 형성된 특성을 보유해 나가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여러 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분포지역은 여러가지 사실 가

운데 민족의 이동에 대한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비록 인간은 동일종족과 문화로부터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언어를 가지고 있거나 특히 섬일 경우 또는 그 양자를 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전과 이후 인구의 형질적인 흔적을 비교함으로써, 민족의 이동이나 전파에 기인하는 문화변동의 정도를 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매우 중요한 부장품을 가진 무덤과 빈약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인종구성이 동일한 종이었는가 아닌가, 그리고 동일하지 않다면 통치자는 외부에서 온 정복자들이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결론에 필요한 그러한 증거는 결코 바랄 수는 없는 것들이다. 현존하는 종족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즉 염색소, 모발형태, 혈액 등은 선사시대 기간동안 없어져 버렸거나,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되어, 선사학자들은 두개골에 남아있는 특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火葬이나 樹葬, 風葬이 실시되었던 곳은 이러한 증거조차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로서 유용한 土葬이 충분할 만큼 많은 숫자로 제공된다면, 통계분석이라는 근대적인 연구방법에 의해 모든 선사학자들이 답을 구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火葬된 뼈도 포함하여 인간의 유골 또한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묘지에 매장된 것이나 주거지와 관련된 것 가능한 한 많은 예를 분석해 보는 것 역시 여러 시기의 인구밀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밝혀낼 수 있지만, 예컨대 직접적인 연구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데에는 선사시대로부터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보다 훨씬 완전한 기록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성되어진 유사한 문화수준에 있는 인구수의 자료에 입각해서 당시의 인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예를 들어 수렵어로민의 발달된 경제 하에 있던 유럽의 빙하주변에 살고 있는 인구수에 대한 견해는 북아메리카의 아북극지대를 참조하여 얻을 수 있다. 신세계의 북극지역의 인구밀도는, 최근에도 매우 넓은 경제 안의 지역에 따라, 알래스카의 30평방 마일당 약 1인(1867)으로부터 북서지역의 200평방 마일당 1인(1911)에까지 다르지만,¹⁾ 중요한 사실은 어디서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의 어떤 작가가 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 대해 기술해 놓았던 바를 생각해 보자. “매우 소수의 캘리포니아인이 있는데 그 나라의 면적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 4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여행해도 단 한사람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²⁾ 만약 알래스카와 북서지역에서 얻은 숫자를 영국과 웨일즈에 적용해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 2,000이나 250인의 인구가 될 것이며, 이것은 아마 후기 구석기시대에 있어 인구상태에 대한 좋은 견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숫자가 적다는 것은 약 10개의 작은 집단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이 빈약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소수의 유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매우 일반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한편 빙하기 이후의 초기동안 주위환경은 발견 당시의 타스마니아(Tasmania)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다. 여기에 다시 최적의 상태에서 2,000 내지 5,000명 사이의 원주민이 살고 있다³⁾ 해도, 각 거주민당 13~15평방마일로 인구밀도가 주어지는 정확한 숫자에 대한 의문은 계속

1) 『Encyclopaedia Britannica』 14권 I, p. 501 및 IV, p. 694에 나온 기술에 의거하였다.

2) L. Krzywicki, 『Primitive Society and its Vital Statistics』 London 1934, II권에서 인용

3) 『Chambers' Encyclopaedia』 1950, VIII p. 473에서 인용

일어나게 된다. 낮은 쪽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중석기시대에 영국에는 4,5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의 전 기간동안 거주는 거의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가진 주요한 주거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농경의 도입이 인구의 증가를 가능하게 했음은 명백히 추측된다. 혼합농경은 신석기 시대로부터 행해졌지만 청동기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는 목축 위주였던 것 같으며, 인구는 선사시대에 영국 남부에 한정되어 있던 고정된 경작지가 생길 때까지 급속히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지 않다. 현존 원시종족에 대한 어떠한 유추도 선사시대의 영국이나 유럽인의 농경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곡식을 재배하는 종족들이 더 이상 문명의 울타리 밖에서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고고학적, 骨相學的 증거에 입각하여 추론해 내려면 보통 이용되는 정보보다 훨씬 좋은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알고자 하는 좀더 정확한 결과로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얼마나 많은 주거가 점유되었는가, 묘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는가, 그들이 어떤 지역을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인구 중 어떤 비율로 대개 매장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거대한 石室墓가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었다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그 시대에 주거가 잘 이루어졌던 지역인 케이스니스(Caithness)에서 차일드(V.G. Childe)가 신석기시대의 인구를 300~400명으로 추정해낸 것은 교훈적이다.⁴⁾ 초기 청동기시대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본토의 인구가 평균 2,500명 가량이라는 그의 견해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대체로 신석기시대의 영국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2만명 이상이 되었는지 또는 이 숫자가 기원전 2000년기 동안에 2배 이상으로 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巨石墓나 동부의 封土墳, 列石紀念物, 環狀列石과 같은 건조물은 밀집된 인구를 나타내는 집중된 노동력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에 대하여 반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목축사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는 상당히 여가가 많았고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군사적인 필요를 제외하고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필요로 쉽게 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 시대는 초기철기시대 보다 억압이 적었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선사시대에 있어 어떤 지역에 살던 최대인구수에 대한 예증은 초기 역사시대에서 얻어져야 한다. 그러나 19세기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확한 통계숫자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사시대에 대해 현존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록된 자료로부터 숫자를 추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며, 돔즈데이조사(Domesday Survey) 때 영국과 웨일즈의 인구가 150만이라는 것은 아마도 오차폭이 그리 넓은 것은 아닐 것이다. 2차적인 주거지역의 딱딱한 점토질 땅을 처음으로 힘들여 경작하게 된 사실을 보면, 휠러(Wheeler)씨에게는 실례지만 로마제국시대의 영국인구는 실제적으로 보다 적어야 할 것 같다. 콜링우드(Collingwood)의 50만이라는 제안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⁵⁾ 로마의 속주가 곡물수급을 주로 ‘파헤치는 농경’인 켈트족의 농업체제에 의존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해도, 무거운 형태의 쟁기가 아마 장원제도와의 관계 하에서 딱딱한 토양을 경작할 수 있게 하였고, 선사시대에 속하는 철기시대 이래 켈트족의 경작체제가 이전에는 경작되지 않았던 습지의 풍부한 沈泥質 지역에도 그 영역을 넓혀갔던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한 쪽의 문제로서 로마의

4) 「Prehistory of Scotland」 pp. 55-6 및 122.

5) 「Antiquity」 1929 pp. 261-76 및 1930 pp. 91 ff 참조.

속주가 실질적인 군대 숫자와 행정관과 남부지역의 몇 도시를 부양하고, 그 위에 또 선사시대의 철기시대 마지막 100년 동안에 획득된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정도로 식량생산의 증가를 이루어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클라우디우스(Claudius: 로마황제, 10 B.C.~A.D. 54)의 침략 시대에 이 나라의 인구가 로마인의 통치가 확고해진 후보다 실질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여러 기간동안의 인구밀도에 관한 문제는 경제 발달의 척도가 되는 중요성 때문에 자주 강조되는 것이고, 정확한 해답에 거의 유사하게 맞추어 나가는 방법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이점에 관해 정보를 얻는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인구 수가 변화하는 다른 이유는 그 연령구성에 있다. 초기에 수명연한은 짧았고 결혼은 어린 나이에 이루어졌으며, 세대도 신속하게 교체되었다. 사춘기의 경우 긴 뼈 끝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용해 정도와 이가 난 단계를, 그리고 성인의 경우 두개골 봉합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개인이 죽은 나이를 대략 추정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러 유럽인 집단에서 행해진 조사결과가, 발로아(H.V. Vallois) 교수의 연구에 의거한 표에 나타나 있다(표 참조).

정착생활의 결과는 오스트리아 초기 청동기시대의 인구 숫자와 식량채집단계의 세 유럽인 집단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드러난다. 지난 100년동안 급속도의 인구 증가는 의학이 전례없이 발전했음을 반영한다. 식량채집단계 이래 인간의 수명이 60세 이상으로 100배나 증가하였음에 반하여, 초기청동기시대와 현대 사이의 증가는 단지 7배이고 마지막 100년 동안은 $\frac{1}{2}$ 이었다는 것이 관찰될 것이다.

개별적인 유골에 대한 연구는, 법의학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싸움의 수단과 두개골의 변형양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조건, 영양섭취,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었다. 뚜렷한 단서로는 관절염의 발생, 충치, 조직의 장애에 대한 증거 등을 들 수 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 직업병으로 일어나는 불구,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사용된 치밀한 방법, 환자의 생존에 의해 그 효과를 판단한 사실, 두개골, 척추, 뼈대의 다른 부분에 뚫고 들어간 槍 끝이나 파편(圖 10), 또는 두개골에 칼자국이 있는 예, 그리고 손가락을 절단한 것, 拔齒, 扁頭 등이 모두 그러한 증거이다.

10. 接觸과 變化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끔 암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모델로서 시간의 한 점에서 가정된 생태학적 집단사회에 작용하는 단일문화를 채택해 왔다. 실제로 오랫동안 정지한 채 존재하는 사회는 없다. 반대로 변화는 생명의 지고한 법칙이며 선사학을 구성하는 것은 부단한 변화과정의 개요이다. 선사학은 사실 인간이 동물상태의 존재에서부터 문명과 문자의 여명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변화의 기록이며, 선사학자의 관심은 이와 같은 기록된 변화의 규모에 있게 된다. 선사학자의 주요한 과제가 선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궁극적인 과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가 다시 말하여 도대체 왜 선사학이 역사학과 병행하여 존재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부분에서 강조된 문화의 여러 측면이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에 있어서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생산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는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구조, 인구밀도, 때로는 신앙상의 믿음에 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태학적 집단사회 사이에서 복잡한 연쇄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온이나 강우의 변동, 물고기떼의 이동에 있어서의 변동과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는 경제와 환경 사이의 평형을 깨뜨리고, 이는 생존기반에 확실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화의 미미한 측면에까지도 예기치 않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대조적으로 신앙이나 가치체계의 변화는 문화의 완전한 평형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변동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심지어 우연하거나 돌발적인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중요성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항상 중요하며, 문화의 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뜻밖의 변화는 다른 면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본래의 원인을 훨씬 초월해서 혼란과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임을 또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의 개인의 영향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선사학자가 개인에 대해 알아내지 못하는 사실은 개인의 존재에 대해 특히 이러한 변화의 문제에 있어 무시해 버리기 때문은 아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원시사회에서 관습법이 왕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혁신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지휘를 따르게 되는데 대개는 개인의 변덕이나 심지어는 내키지 않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 사이의 접촉에서 생기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교역, 전쟁 또는 우연한 일을 통한 접촉의 결과가 우선 단 하나의 생각이나 한가지 기술지식의 전달만이 포함될지라도, 궁극적인 영향으로 문화의 전체적인 조화가 깨뜨려지고 아주 중요한 것으로 될 지 모르는 일련의 재조정작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인류 전체에 관한 한 그러한 변화의 결과는 문화의 분포범위와 효능을 확대시켜 왔다. 두 가지의 명백한 과정이 발견될 수 있다. 우선 고고학적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적인 변화는 보다 효과적인 과정과 생활양식의 점진적인 진화를 수행하고 있다. 변화의 요인과 경쟁하는 사회집단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야기될 기술의 발달과 기회가 보다 넓게 주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기대되는데, 효능이 감소된 변화는 결국 여러가지 향상시켜온 변화에 의해 배제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개인이나 계급, 집단의 일시적 패배나 축출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보는 처음에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문화요소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인 것이다. 전기와 중기 홍적세의 석기가 1만년에서 10만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세련도를 더해가는 고고학적인 자료로도 설득력 있게 반영시킬 수 있는 초기의 완만성은, 소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이나,性に 알맞는 일을 제외하고는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든가,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상대가 희소하다든가 또 각 문화에 있어 요소가 비교적 적었던 것 등에 기인하고 있다. 농경을 발견하고 이를 수행함에 따라 수반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단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직업이 분화될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덧붙여 보다 안정된 생활방식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문화가 지역적

으로 다양성 있게 발전하고, 진보와 변화과정을 촉진시켰던 자극을 주는 접촉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를 형성하는데 다른 주요한 과정인 전파나 相傳을 강화시킨 것은, 유럽, 어로, 채집민의 세계로부터 농경민의 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경민으로부터 문명화된 민족들의 출현 때문이며, 그들에 의하여 비교적 발전이 뒤진 민족들도 보다 발달된 민족들이 쌓아올린 업적에 한몫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문명으로 향한 진보에 수반되었던 계층화된 계급의 출현과 동시에, 개별적 사회에 문화적 相傳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두 사회가 접촉하게 될 때 전파는 지도자계층의 수행방법에 따라 대부분 보다 발달된 곳으로부터, 보다 덜 발달된 곳으로 진행되고, 相傳된 문화형태는 사회집단의 일반성원에게까지도 도달하게 된다. 유럽의 청동기나 철기시대와 같이 선도적인 집단은 이미 역사적인 문자를 가진 문명단계를 경과하였던 시기에 공존했던 제2선사 시대의 사회에서 이러한 전파와 相傳의 과정은 문화변화에 있어 주된 대행자였다. 그러한 것들을 연구함에 있어, 보다 발전된 사회와의 접촉이라는 점에 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문화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선사학자들은 전전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대에 속하는 문명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제2선사시대의 문화는 이러한 영향으로 단순히 나타나는 지방적인 반응이거나 빈약한 반응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해 왔던 것은 보다 고급한 문화로부터의 자극에 창조적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토착문명을 발전시켜 놓은 그들 자신에게 독특한 천재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뛰어난 예가 온화한 기후를 가진 유럽의 켈트족과 튜우튼족인데, 이들은 극동과 지중해의 고대문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그들의 천재성에 잘 조화시켜 기나긴 야만의 시대로부터 벗어나 현대문명을 창조하고 거주할 수 있는 세계에 그들의 지배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圖 1. 동부스페인 알페라 유적 벽화에 보이는 야생 꿀을 따 모으는 여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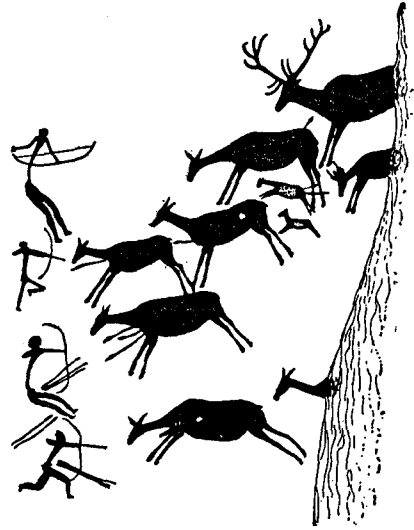


圖 2. 동부 스페인 구에바 데 로스 까발로스 유적의 벽화



圖 3. 스페인 산 미구엘 페 리나 유적에서 발견된 이베리아 화병에 묘사된 음악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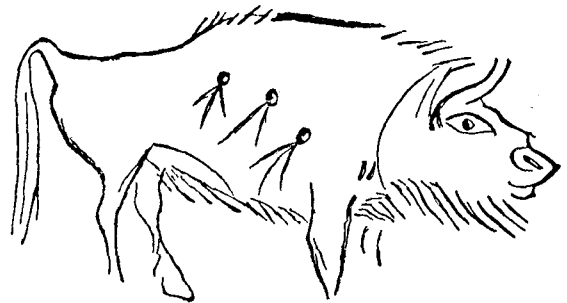


圖 4. 프랑스 아리제 니오유적에 있는 암각화에 묘사된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은 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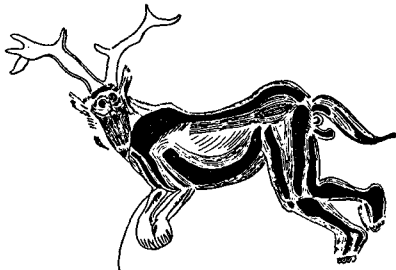


圖 5. 프랑스 아리제 유적의 암각화와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트로와 프레르의 마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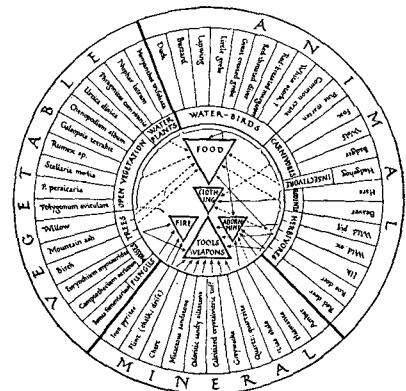


圖 6. 영국 육서 스타 카 유적에 살던 중석기 시대의 수렵인들의 자연환경의 이용을 보여주는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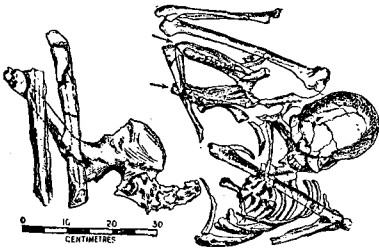


圖 7. 팔레스타인 카르멜산 무가레트 시스 스킴 유적에서 거대한 수태지의 턱뼈와 함께 발굴된 네안데탈인의 인골



圖 8. 바바리아 오프넛트 유적에서 발굴된 중석기시대의 두개골들.

	0-14 years	15-20 years	21-40 years	41-60 years	Over 60 years
Neanderthal man (20)	40	15	40	5	—
Upper Palaeolithic man (102)	24.5	9.8	53.9	11.8	—
Mesolithic man (65)	30.8	6.2	58.5	3	1.5
Early Bronze Age cemetery, Austria (273)	7.9	17.2	39.9	28.6	7.3
Lower Austria in 1829	50.7	3.3	12.1	12.8	21
Austria in 1927	15.4	2.7	11.9	22.6	47.4

圖 9. 조사대상의 선사시대 각인종집단에 대한 숫자는 각각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고, 또 그 결과는 %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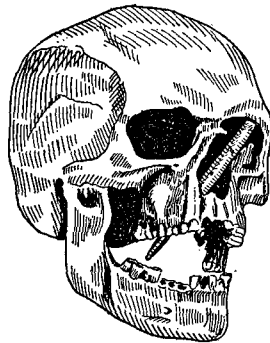


圖 10. 덴마크 베스트베드 포르스 모세 유적에 화살촉이 박힌 채로 매장되어 있던 신석기 시대의 두개골.